

# 시간·돈 올인해도 돈 못버는 광주 편의점

호남권 창업자 54.2% 3001만~5000만원 이하 초기 투자  
평균 매출액 3억3118만원... 부산보다 2억4300만원 적어  
본부 지원금도 전국 반토막 수준... 본포 비율은 전국 4번째

## 대한상의, 2019 편의점 실태조사

호남권 편의점 가맹점주 10명 중 9명(92.8%)은 가족 종사자를 동원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로 100점 만점에 46.8점을 줬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받은 '2019 프랜차이즈 실태조사(편의점)' 결과에 담겼다. 상공회의소는 2018년 말 기준 광주·전남·전북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편의점 가맹점의 800개 사례를 표본조사했다. 왜 편의점 창업을 택했냐고 묻자 광주·전남·전북 가맹점주의 68.4%(중복응답)는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자

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53.4%)와 '적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37.4%)라는 응답도 있었다. 현재 점포를 내기까지 최초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54.2%가 '3001만~5000만원 이하'로 들었다고 답했다. 5001만~1억원 이하(23.3%), 3000만원 이하(21.6%)가 뒤를 이었다. 여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 비중은 12.6%로 나왔다. 이 가운데 3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36.7%로, 전국 평균(8%)을 크게 웃돌았다. 점주가 점포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전체의 79.4% 정도였고, 본사에 귀속된 비중은 17%로 나타났다. 공동 부담한다는

답변은 3.5%였다. 인테리어 비용은 절반 이상(57.6%)이 본사가 부담했는데, 점주 부담은 34.4%, 공동 부담은 8%로 조사됐다. 2018년 기준 총 매출액 평균은 3억3118만원으로, 전국 평균(4억7523만원)보다 1억4400만원 가량 적었고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부산·울산·경북(6억7473만원)과는 2억4300만원 넘게 차이가 났다. 호남권 가맹점주 절반 가량(48.1%)은 총 매출이 3억원 이하라고 답해, 그 비율이 전국 평균 응답률(19.8%)보다 2배 넘게 많았다. 매출액은 전국 하위권에 들었지만 평균 본부 지원금은 533만원으로, 7개 권역 중 가장 적었다. 전국 평균 지원금은 1078만원으로, 호남권은 이의 반토막 수준이었다. 호남권에서 본부 지원금이 아예 없다는 응답률은 44.4%에 달했다. 점포 운영 만족도를 가능하기 위해 '투자 대비 수익률'을 묻자 지역 가맹점주들은 100점 만점에 46.8점을 줬다. 전국 평균은

41.1점으로, 전국 7개 권역 가운데 강원·제주(55.3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체 편의점을 기준으로 인접점포와의 거리(직선)를 측정한 결과, 전국 평균 거리는 224.9m인 반면 광주지역은 이의 70% 수준인 157.3m로 조사됐다. 광주 편의점들은 평균적인 편의점 본포 비율을 크게 넘겼다는 뜻이다. 광주지역은 서울(104.6m), 부산(148m), 대전(150m)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본포도가 높았다. 반면 전남 편의점간 거리는 488.3m로 가장 멀었다. 편의점 업계는 지난해부터 편의점 간 과당경쟁이 심화되면서 근접출점을 자제하자는 '자율규약'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는 근접출점 자체 규약을 잘 지키고 있다는 답변이 73.2%로, 전국 평균(71.4%) 수준을 지켰다. 하지만 잘 지키고 있지 않다는 답변도 18.1%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 특 특 창업이야기



### 소상공인 폐업의 현황과 지원사업

올해 7월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국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총 704만3264명이다. 그 중 2019년에 창업을 한 사업자는 117만8769명이고 폐업자수는 85만 2572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 폐업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증가한 올해는 폐업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한 소상공인들 4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4월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창업에서 폐업까지 평균 6.4개월이 걸리며 폐업 때 부채는 평균 4030만원에 달하며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들은 권리금 회수가 35%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장 매도 및 기존 설비 처분이 24.3%, 복잡한 폐업절차가 10%를 차지했다. 또한 폐업 이후의 애로사항은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이 25.5%로 가장 높았으며 지식, 경험, 능력에 대한 역량부족이 23.0%, 실패에 대한 좌절감 및 심리적 불안감이 14.8%, 부채, 세무, 임금 등 연체 채무가 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의 주요 원인으로는 매출감소 66.3%, 기타 13.3%, 개인사정 8.8%, 운영자금 부족 4.8%, 보증금 및 임차료 인상 부담이 3.0%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후 폐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인 48.3%, 4~6개월 27.3%, 10~12개월이 15.5% 순으로 소수였다. 6개월이 내의 폐업률이 75.6%로 창업 후 폐업을 결심하기까지의 기간이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폐업을 결정하는 기준을 영입이익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최대 영입이익 대비 영입이익이 53.1% 감소해 해당 상황이 지속됐을 때 폐업을 결정했고 영입이익 대비 부채증가율이 평균 39.3% 이상이 증가할 경우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수족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관련한 정책지원 사업들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재가자금, 긴급생계/대환자금, 저신용특별자금, 사업전환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제도 등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소상공인 재가지원센터, 부실채권 정리 등 인프라 지원사업, 재창업패키지 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폐업하는 소상공인들 중 중소기업부와 산하기관에서 이런 폐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이 30.8%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움직임과 소비가 둔화된 상황에서 예비창업자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과 경영지원사업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아무도 원치 않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현실이 될지도 모를 폐업을 대비해 폐업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사업도 살짝 알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상의 모든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원치 않는 창업의 결말이 폐업이다. 청년 예비창업자들이야 폐업 이후라도 취업을 통해 경험과 자본을 다시 축적해 또 다른 재창업의 기회를 얼마든지 모색하고 재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만 중장년들의 경우에는 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인지를 생계를 위해서 더 적어진 자본으로 다시 재창업에 나서야 하는 힘든 상황에 내몰리기 십상이다.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창업 준비과정에서 더 진지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섬세하고, 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운동선수 수를 따를 때 성공이고 목표이기에 4년이라는 치열한 준비기간을 거친다. 당신은 인생을 걸고 뛰어들어 창업에서 성공을 향한 준비과정에서의 치열함은 충분한가?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 기아차,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3년 연속 수상

### 지속가능경영대상 부문 2003년부터 보고서 발간

기아자동차는 27일 한국경영인협회가 주관한 '2020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속가능경영대상 보고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은 한국경영인협회가 기업의 전략과 미래가치, 상품 및 서비스 등과 관련한 경영 시스템에 대해 총 7개 부문에서 지속 가능성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상이다. 지속가능경영대상은 최근 17개년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고서의 품질과 의사소통 효과성을 ▲중요성 ▲이해가능성 ▲신뢰성 측면에서 엄격한 심

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번 심사에서 기아차는 종합 89.71점의 부문 최고점으로 3년 연속 대상에 올랐다. 미래 전략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정보의 중요성과 이해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는 고객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회사의 의지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로 2003년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발전 방향을 이해하기 쉬운 보고서를 통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베레모로 가을 느낌 물씬~ 2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3층 모자매장에서 올 겨울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 베레모를 써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한전KDN, 지역인재 훈련 센터 시범 운영

### 전력 ICT 분야 교육·체험 제공

한전KDN은 전력ICT 분야 광주·전남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한 직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한전KDN은 27일 나주 본사에서 'DAS(배전자동화시스템) 트레이닝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곳에서는 광주·전남 지역학생을 대상으로 전력ICT 분야 교육과 체험이 제공된

다. 주요 내용은 ▲배전계통운영 솔루션 소개 및 정전복구 실습 ▲송변전-지능형계량인프라(AMI) 등 전력ICT 기술교육 ▲홍보관·전력시험센터 현장 견학 등이 있다. 한전KDN은 연말까지 지역학교와 체험형 인턴을 대상으로 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